

▶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학습과 그것의 안티테제

▶ 박 동 섭

▶ littleegan@gmail.com

서구화된 학습개념 재디자인하기

- ▶ Our idea of how children learn is based firmly on western concepts of learning, and in particular those of formal schooling.
- ▶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서구화된 학습개념에 강고히 묶여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정의하는 학습개념에 말이다

서구화된 학습개념 재디자인하기

- ▶ Nonetheless, we present this idea as universal and adequate for characterizing learning process in any cultural context.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서구화된 학습개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학습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여긴다.
- ▶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you go.

서구화된 학습개념 재디자인하기

- ▶ Each cultural practice creates its own forms of instruction, and learning and teaching are not independent of culture.
- ▶ 각각의 문화적 실천은 그 실천 고유의 가르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학습과 교수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어느 교육심리 수강생이 들려주는 이야기

- ▶ 언젠가 '박동섭 교수님의 수업은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수강생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다.
- ▶ 어떤 교수님의 입장에서라도 힘이 쭉 빠지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같은 강의를 들었던 학생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공감한다.
- ▶ 나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배운다는 의미는 교수님이 내 머리 속에 어떠한 지식을 집어넣어준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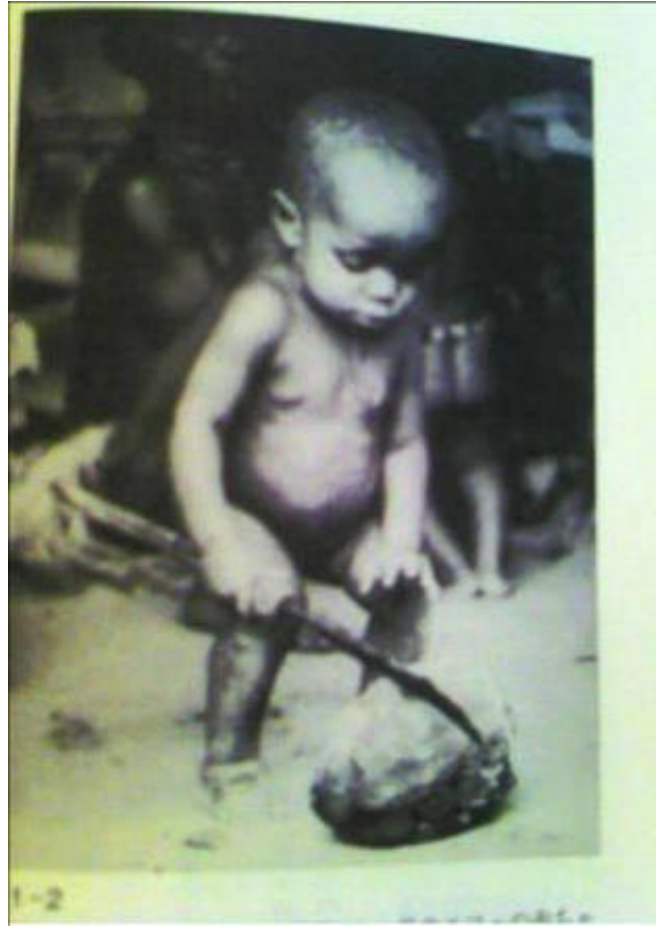
어느 교육심리 수강생이 들려주는 이야기

- ▶ 그런데 교수님의 수업은 달랐다.
- ▶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러한 생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게 했다.
- ▶ 이것 자체가 **배움이자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아니 그렇다. 학습(혹은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해야만 한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 하지 않는다.
- ▶ 그것이 통 암기의 주입식 교육이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유로운 형식이든 평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데 일반적인, 관습적인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학생들은 달라진 학습방법에 마주하자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어느 교육심리 수강생이 들려주는 이야기

- ▶ 물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 ▶ 그것은 기존의 일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그러나 교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갔다면, 교수님의 지도에 응했다면 나는 분명 배움이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장담한다.
- ▶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이면서 전통의 일부이기도 하다’



친족이 주의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콩고의 생후 11개월된 아기는 칼과 같은것으로 과일을 능숙하게 자르고 있다 (Rogoff, 2003)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이면서 전통의 일부이기도 하다’

- ▶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께 정의를 시도해 보라고 하면
- ▶ 일단 침묵을 지킨다.
- ▶ 멀뚱멀뚱 쳐다본다.
- ▶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 ▶ 갇 고개를 숙인다.
- ▶ "그런 것 일부러 애써 정의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닌가요?"
- ▶ "뭔가를 외우는 것 아닌가요?"
- ▶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 ▶ 그 만큼 ‘학습’이라는 개념은 애써 정의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Taken-for-granted) 개념이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학습의 개념

- ▶ 심리학에서는 **학습**이라는 개념을 **개체 수준 (individual level)**에서 **'경험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서 정의한다.
- ▶ 즉, 매일의 루틴과 반복연습을 경험함으로써 그 행동이 안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학습'으로 본다
- ▶ 그리고 이러한 주류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학습'의 개념은 대학수업을 비롯해서 '학습'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아카데미한 담론과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 ▶ 그런데 그 **'학습'이란 개념은 보편적인가?**

새로운 시좌의 제안

- ▶ “현실로부터 이론과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개념 덕분에 현실이 보인다”라는 시점이다.
- ▶ 즉 “반복해서 경험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이 학습이다”라는 상식을 잠시 정지하고,
- ▶ 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행위를 보는 방식을 끼워 맞추는 형지 혹은 참조틀이 된다고 시점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시좌의 제안

- ▶ 형지는 필요 없는 것을 잘라 내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렇게 해서 사물이나 현상을 보기 쉽게 한다.
- ▶ **학습**이라는 개념이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현상 혹은 사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취하고 어떤 부분을 버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이라는 개념에 상응(match)하는 것만을 우리 눈에 보여준다고 시점 전환을 하면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새로운 시좌의 제안

- ▶ 주류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학습**이라는 개념은 **'배우는 개인', '바뀌어져야 하는 개인'**이라는 인간상을 대상화해서 **관찰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외는 **감춘다. 고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